

KWDI 이슈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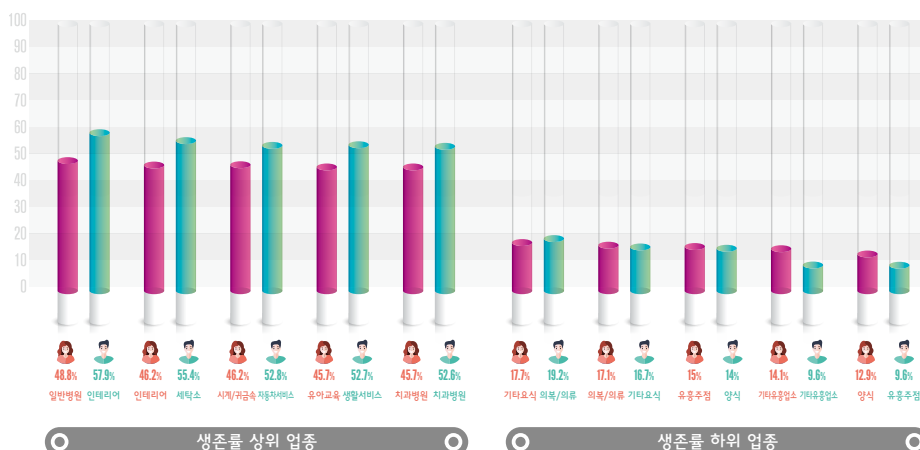
수행과제명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1) 과제책임자 문유경 선임연구위원 (Tel:02-3156-7132 / e-mail: mizmoon@kwidimail.re.kr)

여성 자영업자, 창업은 많은데 ‘생존율’은 낮아

초록

-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회원국에 비해 높은 편임. OECD 회원국 평균은 14.8%인 반면 한국은 전체 취업자 중 21.2%를 차지함.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만을 보아도 한국이 15.3%로 OECD회원국 평균인 10.6% 보다 높음. 한국은 자영업의 비율이 높지만 근로조건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항상 유리하지는 않음. 특히 장 시간 근로와 불안정한 수입이 자영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부각됨.
- 한국의 자영업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운영성과가 낮은 편이어서 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여성자영업자들은 남성에 비해 창업의 자금규모가 적고, 이전의 근로경험이 짧고, 전문지식이 적음. 더불어 6세 미만 자녀의 돌봄과 가사의 부담 등으로 사업성과와 지속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여성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5년 생존율이 28%에 불과해 자영업자의 운영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자영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창업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병행해야 함을 보여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업종으로의 유도 및 연령별 성별 특성을 감안한 정책 필요성을 제안함. 더불어 연구방법론의 새로운 모색과, 보다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의 구축을 제안함.

성별 생존률 상위/하위 업종



1. 배경 및 문제점

📍 자영업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긴 근무시간, 수입의 변동과 이익의 부족 등의 어려움도 함께 존재함.

▶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회원국에 비해 높은 편임. OECD 회원국 평균은 14.8%인 반면 한국은 전체 취업자 중 21.2%를 차지함.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만을 보아도 한국이 15.3%로 OECD회원국 평균인 10.6%보다 높음.

▶ 한국은 자영업의 비율이 높지만 근로조건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항상 유리하지는 않음. 특히 장시간 근로와 불안정한 수입이 자영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부각됨.

📍 한국의 자영업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운영성과가 낮은 편이어서 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여성자영업자들은 남성에 비해 창업의 자금규모가 적고, 이전의 근로경험이 짧고, 전문지식이 적음. 더불어 6세 미만 자녀의 돌봄과 가사의 부담 등으로 사업성과와 지속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자영업의 생존율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 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봄.

▶ 자영업자에게 있어 창업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가 더욱 중요 할 것임. 이를 염두에 두고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의 한 지표로 창·폐업 현황과 생존기간, 생존율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함

▶ 업종전환이나, 임금근로자로 신분변동,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이동 등으로 폐업이 발생할 수 있어 폐업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은 아님. 하지만 투자액 대비 낮은 영업이익으로 생활이 어렵게 될 경우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한 채 폐업에 이르게 될 경우 빈곤층으로의 전락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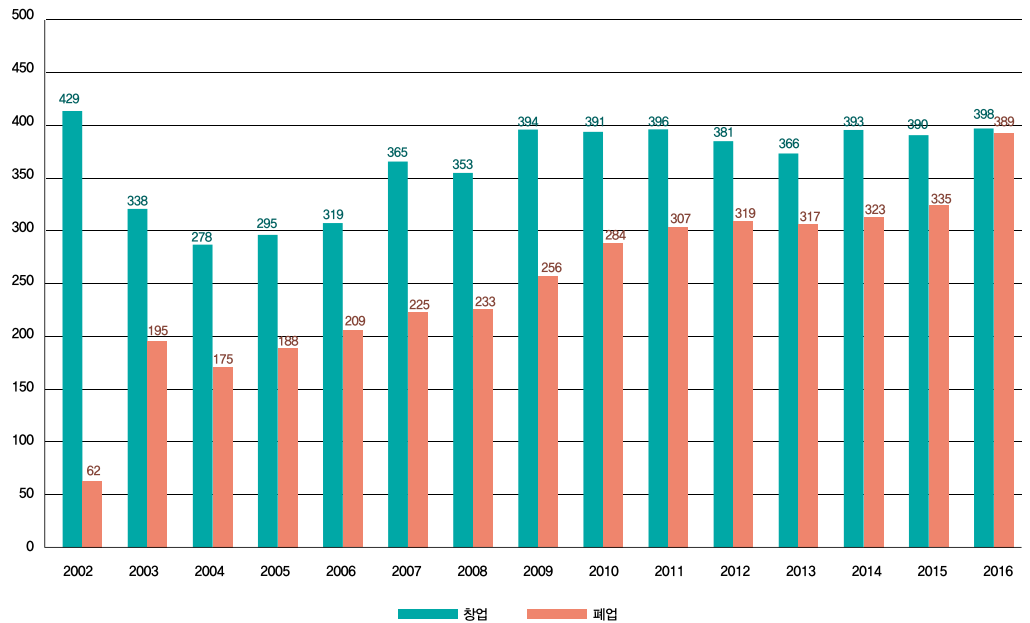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자영업자의 창·폐업 현황과 생존율을 분석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 분석자료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카드에 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기초로 구축함.

▶ 분석변수는 개인사업자의 성(여, 남), 지역(17개 시도 및 서울 25개구), 업종(13개 대분류, 57개 세부분류), 창업연월, 폐업연월, 2016년 12월기준 생존여부이며, 분석대상 규모는 총 548만 사업체임.

▶ 이 자료는 기존의 횡단조사와 달리 시계열분석을 통한 폐업현황이 파악되며, 분석대상이 전수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음.



출처 :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빅데이터

(단위: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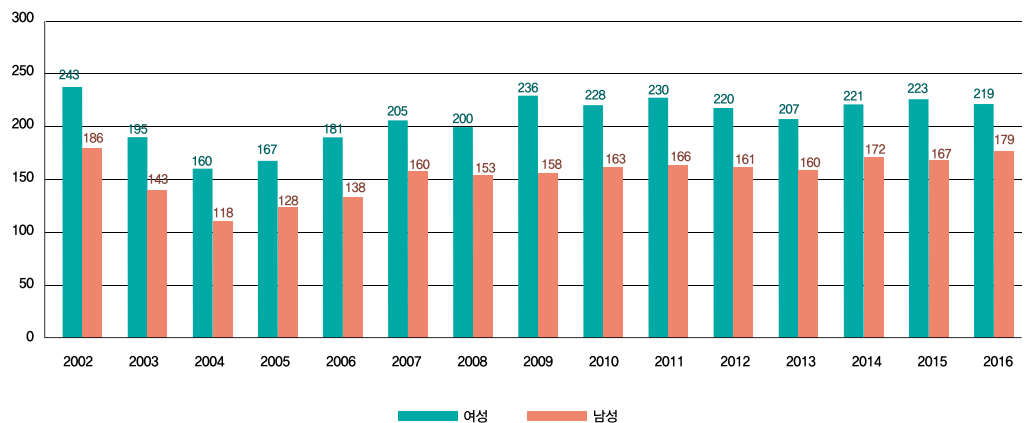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창·폐업수

📍 여성이 남성보다 창업수가 많음.

- ▶ 그러나 폐업수도 많아 창업수의 차이에 비해 유지업체의 차이는 줄어들.
- ▶ 15년간 여성 창업자수는 314만명, 남성은 235만명으로 여성창업이 약 79만명 많음.
- ▶ 2016년 12월 기준으로 존속업체는 보면 여성 92만명, 남성 75만명으로 남녀 차이는 17만명으로 감소함.

📍 연도별 창업자수의 변화는 성별, 연령별로 비슷한 추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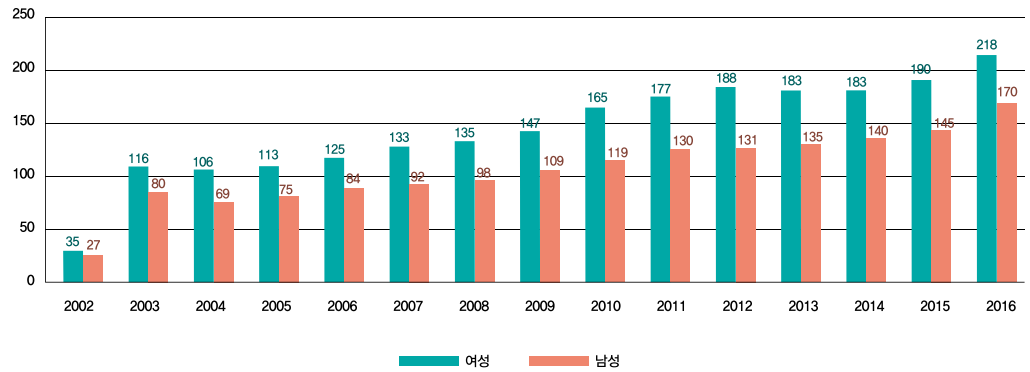
- ▶ 2002년의 42만9천명에서 차츰 감소하여 2004년에 27만8천명까지 감소하다 이후 증가세로 바뀌어 2009년에 39만4천명이 창업함. 이후 비슷한 수준임.



출처 :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빅데이터

(단위:천개)

〈그림 2〉 연도별 성별 창업수



출처 :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빅데이터

(단위:천개)

〈그림 3〉 연도별 성별 폐업수

📍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전체가 29%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성별로는 여성이 27.1%, 남성이 31.5%로 여성이 4.4%포인트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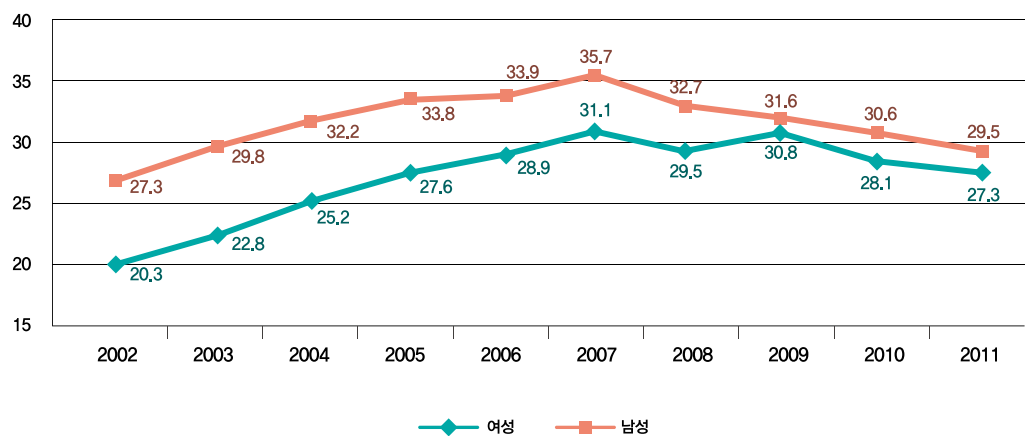
〈표 1〉 사업체의 성별 생존율

(단위 : 천개, %)

	2002.1~2011.12 창업한 사업체수	생존기간 61개월 이상 업체수	폐업한 사업체수	5년 생존율
전체	3,558,170	1,032,117	2,526,053	29.0
여성	2,045,178	554,770	1,490,408	27.1
남성	1,512,992	477,357	1,035,645	31.5

출처 :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빅데이터

▶ 성별 생존율의 차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감소함. 2002년에 7.0%포인트에서 2011년에는 2.2%포인트로 감소함.



출처 :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빅데이터

(단위: %)

〈그림 4〉 연도별 성별 생존율

📍 13개 업종별로는 중 남녀 모두 요식/유흥업의 창업이 가장 많고, 여성은 의류잡화, 미용업의 순서이고, 남성은 가정생활/서비스업, 음식료품업의 순서임.

- ▶ 57개 세부업종별 생존율을 보면 여성은 일반병원이 48.8%로 가장 높고, 인테리어, 시계/귀금속의 순서임. 반면 양식업이 12.9%로 가장 낮고, 기타유흥업이 14.1, 유흥주점이 15%의 순서로 낮음.
- ▶ 남성은 인테리어업이 57.9%로 가장 높고, 세탁소, 자동차 서비스업이 그 다음으로 높음.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유흥주점과 기타유흥업소로 각각 9.6%임.
- ▶ 여성의 생존율이 남성과 비교해 가장 크게 높은 업종은 미용실업으로 14.2%포인트 높음. 그 다음이 유흥주점과 화장품업이 5.4%, 5.3%포인트 높음. 이러한 업종의 특징은 여성의 창업비율이 남성보다 높지만 전반적으로 생존율이 낮다는 점임.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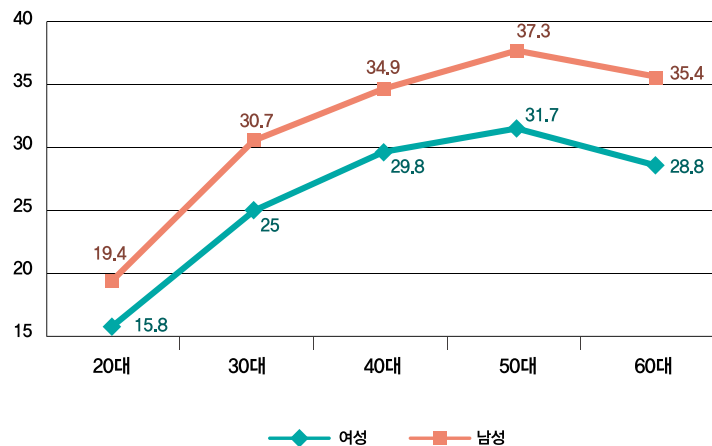
〈표 2〉 성별 생존율 상위 5개업종과 하위 5개 업종

여성		남성	
일반병원	48.8	인테리어	57.9
인테리어	46.2	세탁소	55.4
시계/귀금속	46.2	자동차서비스	52.8
유아교육	45.7	생활서비스	52.7
치과병원	45.7	치과병원	52.6
기타요식	17.7	의복/의류	19.2
의복/의류	17.1	기타요식	16.7
유흥주점	15	양식	14
기타유흥업소	14.1	기타유흥업소	9.6
양식	12.9	유흥주점	9.6

(단위:%)

📍 연령별로 여성은 40대의 창업이 가장 활발하고, 남성은 30대가 가장 활발함.

- ▶ 연령별 생존율을 보면 남녀 모두 5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높아짐.
- ▶ 연령별 생존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2002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생존율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폭은 저연령대일수록 큼. 남성은 2002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20대와 30대는 증가하였으나, 40대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50대와 60대는 감소함. 즉 연령별 생존율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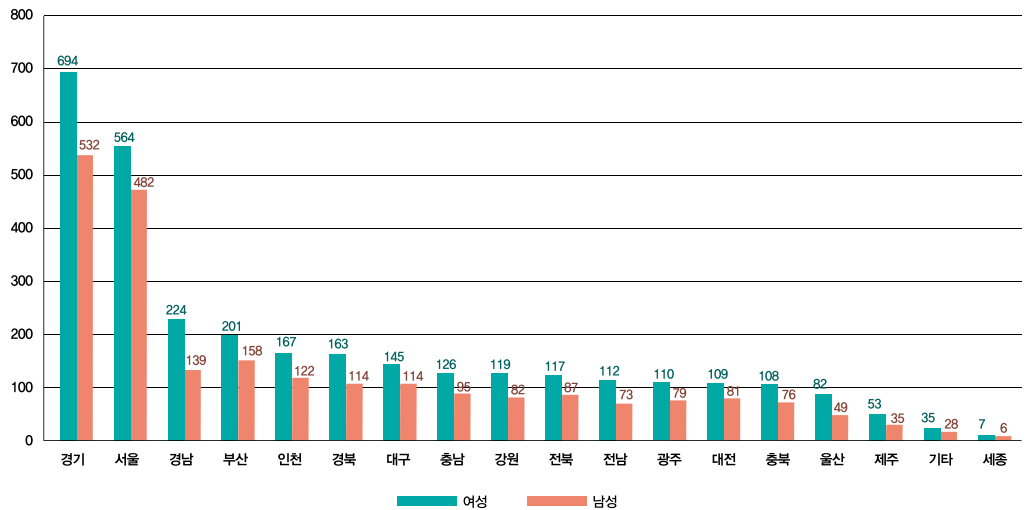
출처 :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빅데이터

(단위:%)

〈그림 5〉 성별 연령별 생존율

📍 지역별로 경기, 서울의 순서로 창업이 많음.

- ▶ 지역별 생존율을 보면 세종이 34.5%로 가장 높고, 광주가 25.4%로 가장 낮음.
- ▶ 성별 생존율은 모든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 ▶ 서울시의 창업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여성 5만2천명, 남성 4만8천명으로 가장 많아 창업규모가 가장 작은 성동구의 4배에 달함.
- ▶ 여성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로 33.4%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남구로 23.0%임.
- ▶ 강남구는 가장 창업이 활발하지만 생존율이 가장 낮고, 남녀 생존율의 차이가 가장 적은 특징을 보임.



출처 :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빅데이터

(단위:천개)

〈그림 6〉 지역별 성별 창업수

3. 정책제언

📍 창업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이 필요

- ▶ 여성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5년 생존율이 28%에 불과해 자영업자의 운영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자영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창업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병행해야 함을 보여줌.

📍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업종으로의 유도

- ▶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업종의 특징은 전문지식이 있거나, 자본집약적인 업종이며, 진입이 쉬운 양식업과 기타유흥업, 유흥주점 등이 창업비용이 높는데 비해 생존율이 낮음. 이는 창업시 전문지식과 자본의 준비가 중요함을 보여줌.

- ▶ 특히 여성의 생존율이 높은 업종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남녀 전체의 생존율이 낮은 업종이며, 여성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이전의 전문지식의 습득과 자본의 준비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연령별 성별 특성을 감안한 정책 필요

- ▶ 20대와 30대의 저연령층의 생존율이 연도별로 증가한 반면 주력 집단이 50대와 60대 남성의 생존율이 감소하고 있어 연령별 생존율의 차이가 적어지고 있음.
- ▶ 이는 지금까지 연령효과라 할 수 있는 창업이전의 경력유무나 경험의 축적량의 차이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는 반면 저연령층에 유리한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신기술의 영향이 커지는 현상으로 추측됨. 향후 연령별 성별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연구방법론의 새로운 모색과,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자료 결합 등이 향후 과제로 남음.

- ▶ 빅데이터는 다른 용도로 생성된 원자료를 이용하고, 가공하여 필요한 자료를 재가공하는 것으로 필요한 변수를 다 구비하기는 어려움. 새로운 연구패러다임이 필요함.
- ▶ 효율적인 자료결합의 예: 가구/인구조사와 개인 사업자간의 연계를 하여 여성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변수들 즉 가족사항, 근로조건, 경영상황 등을 개인 사업자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개인정보와 가맹점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의 구축

- ▶ 여성 자영업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6세 미만의 자녀유무, 가사돌봄의 부담 정도, 가구소득 등 가구관련 변수와 학력, 혼인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들의 변수, 근로경험 등 취업변수 등과 가맹점의 성과변수가 연계되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임. 보다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함